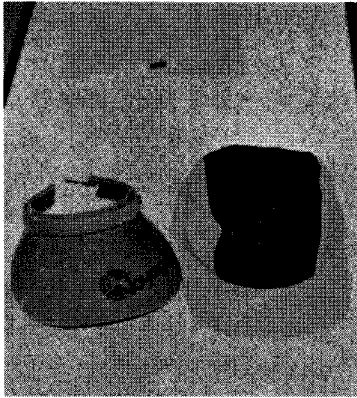


第 77 回

7月 14日, 成功

- 本誌가 刊行한 第77 回
- 1 回 發明敎室이 지난
- 7월 14日 發明장려관
- 연구실에서 개최된
- 다. 右月 둘째 토요일
- 午後 1時에 開催되는
- 發明敎室은 이날에도
- 1백여명이 出席하여
- 盛況을 이루었다. 이
- 날 發明敎室에서는
- 보이저패션 尹貞淑



모자안테 發明家

보이저패션 尹貞淑 사장

'90피츠버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銀賞을 수상한 尹貞淑 여사가 자신의 發明品으로 「보이저패션」이라는 모자전문회사를 차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88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참가, 많은 호응을 얻은 尹 여사는 '90일본유통전시회에도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發明에 관심이 많던 오빠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發明의 소재를 찾곤했다는 尹 여사는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함께 항상 發明을 생활화했다.

尹 여사가 發明한 모자안테는 모자의 안쪽에 띠처럼 두

르는 것으로 3mm 길이의 부드러운 실리콘 돌기가 촘촘히 박혀있어서 모자가 벗겨지거나 머리칼이 납작하게 눌리는 것을 막아준다. 또 모자와 머리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 답답한 느낌없이 모자를 쓸 수 있다.

7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온 尹 여사는 이 모자안테도 교직생활 중에 發明한 것으로 그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다보면 매년 모자를 바람에 날려버려 안타까워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머리 빗 모양의 띠를 모자안쪽에 대면 좋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죠.』

그후, 尹 여사는 모자를 더

욱 세심하게 관찰하여 모자의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라, 착용 후 머리카락에 눌림자국이 생기고, 머리를 압박하여 불쾌감까지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尹 여사는 곧 기존 모자안테의 단점을 보완,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모자안테를 형성하여 特許出願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만해도 尹 여사의 發明品은 안테 접착방법이 조악해서 모자안쪽에 테를 두르면 모자표면이 울거나 안테가 바깥쪽으로 튀통그러지는 등 상품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던 중 '88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와 발명품상설전시장에 개관상품으로 채택, 전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發明教室

事例 등 發表

- 시장의 成功事例發表...○
- 에 이어 金東衡 本會...○
- 연수부장의 「발명의...○
- 창설과 사업」에 대한...○
- 강의와 洪載日 辨理...○
- 토의 「産業財産權制...○
- 法」에 대한 강의와...○
- 토론이 있었다. 發明...○
- 講의 成功事例를 간...○
- 주러 紹介한다. ...○
- (尹梁均 記) ...○



의 격려와 호응을 얻게되자, 尹 여사는 서둘러 발명품을 개선하고 사업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때 경영학을 전공한 尹 여사는 모자시장의 실태와 제품의 성공가능성 등을 세세히 조사하고, 직접 봉제기술까지 익히는 등 용의주도하게 준비 작업을 한 끝에 회사를 설립 하였다.

『회사설립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더군요.』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던 尹 여사의 남편은 당장 안테의 금형을 뜨는 기술상의 문제에서 부터 여러 회사와의 협의와 경영지식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힘을 보태주었다.

처음 尹 여사는 모자회사를 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고 이를 상품화할 길을 찾았다.

그러나, 모자업계가 대부분

영세했고 몇몇 회사는 헐값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사려했기 때문에 결국 직접 모자를 생산·판매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그냥 아이디어를 팔까하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의 메이커 중 신발이나 의류 등은 유명메이커가 있으나 유독 모자만은 없더군요. 그래서 모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회사를 차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모자의 시장조사를 하던 尹 여사는 우리나라의 모자시장이 참으로 방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전해볼 의욕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작업에 들어간 尹 여사의 회사는 이제 겨우 틀이 잡혀가고 있어 지난 1월, 제품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생산되는 것은 8개 품목 20여종의 디자인에 지나지않는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發明품을 들고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전부 찾아갔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죠. 새로운 상품에 대해 무척이나 배척하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압구정 한양쇼핑에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고 尹 여사는 쾌히 수락했다. 한양쇼핑에 發明품이 나가자, 여기저기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고 현재는 백화점내에 전문매장을 연데 이어 백화점 골프용 코너에 까지 發明품을 내놓게 되었으며 수출상담도 진행중에 있다.

두아이의 어머니이자, 한사람의 아내이고, 사업가까지 겸해야하는 尹 여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보이저패션」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겠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